



잘 달리는 것보다 잘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브레이크는 자동차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책임지는 안전장치로 에어백 등 다른 어떤 첨단 안전장치보다 중요하다. 마력, 연비 등 수치로 드러나는 차량 제원이 높아질 수 있는 것도 브레이크 기능이 뒷받침되어서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브레이크의 중요성을 크게 실감하지 못해 점검에 소홀한 편이다. 브레이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PLAY KIA(play.kia.com)가 브레이크 점검 방법을 소개했다.

■ 브레이크 액과 패드의 교체 주기는?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브레이크 액과 브레이크 호스 및 라인의 누유, 파손 여부는 각 차량마다 주행 조건이 다르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브레이크 계통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차량 취급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과 상관없이 브레이크를 조작할 때 평소와 다르게 잘 들지 않는 듯한 느낌이라면 바로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가 평소보다 더 깊게 밟아야 작동하거나, 킁킁 하는 금속성 소리가 나는 경우, 밟았을 때 푹푹 굽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 브레이크 경고등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행을 삼가고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 브레이크를 움직이는 '실세', 브레이크 액



보닛을 열면 브레이크 액이 저장된 탱크가 보이는데, 주기적으로 브레이크 액 탱크의 눈금이 'MIN' 과 'MAX' 사이에 있는지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브레이크 액이 급격히 소모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서

서서히 줄어들기도 하고, 브레이크 라인 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갑자기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브레이크 액 탱크 용량을 확인한다. 브레이크 액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MIN' 아래를 가리킨다면 브레이크 액 보충을, 갑자기 줄어든다면 즉시 서비스 센터에서 브레이크 점검을 받아야 한다.

브레이크 액은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세' 이므로 더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브레이크 액 탱크 뚜껑을 열어 안쪽을 보았을 때 습기가 맺혀 있다면 브레이크 액에 수분이 섞여 있다는 뜻이다. 브레이크 액은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작동 시 발생하는 고온에서도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0℃ 이상의 높은 끓는점을 갖는데, 수분을 포함할수록 끓는 점이 낮아져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브레이크 액이 끓어오르면 브레이크 액이 채워진 브레이크 호스에 기포가 생겨나는 '베이퍼 록' 현상이 발생한다. 이 경우 브레이크 패드를 누르는 피스톤에 압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푹푹 꺼지는 듯한 현상이 발생하고 제동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또 수분과 브레이크 분진 등 각종 노폐물이 브레이크 호스 내부에 들어오면 제동력은 점점 떨어진다.

■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점검



브레이크 액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지시된 힘을 전달하는 '실세' 라면 각 바퀴에 달린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는 실제로 바퀴의 속도를 줄이는 '행동대장' 역할을 맡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부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자동차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휠과 함께 돌아가는 브레이크 디스크를 움켜쥐어 강한 마찰력으로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 패드는 마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패드가 닳아 얇아진다. 브레이크 패드는 얇아질수록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되면 바로 교체해야 한다.

또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끼익~' 하는 소리가 나거나 브레이크 경고등이 들어온다면 이 역시 브레이크를 교체할 때가 됐다는 뜻이다. 브레이크 패드 옆에는 쇠막대가 붙어 있는데, 패드가 막대와 평행한 수준으로 마모되면 브레이크 디스크와 닿으면서 날카로운 소음을 낸다. 또한 패드 내에 센서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패드가 마모되면서 센서가 작동해 계기판에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지기도 한다.

■ 브레이크, 제대로 사용하면 수명도 늘어난다



평소 좋은 운전 습관과 자동차 관리 습관을 갖춘다면 브레이크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자동차는 되도록 과적을 삼가고 가벼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특히 주행 직후 세차를 할 때 브레이크에 직접 물을 뿌리면 브레이크 디스크가 갑자기 식으며 휘게 되는 등 열변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식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 후 세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세차할 때 브레이크에 직접 고압수를 뿌리는 것은 브레이크 액의 수분 함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차할 때 브레이크 부분에 물을 과도하게 많이 뿌리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브레이크는 급하게 깊숙이 밟기보다는 부드럽게 단계를 나누듯 밟는 것이 제동력도 높이고 브레이크의 수명도 늘리는 좋은 방법이다.

사진=shutterstock



EXPO LENDING

Gale Financial DBA Expo Lending
Equal Housing Lender DRE: #02064448 NMLS: #1721928





Sean Kim
Senior Loan Agent



투자용 주택 스페셜 프로그램

신속한 융자 필요하신 분! 융자 상담 도와드립니다. 타주 융자 가능

- No Income Program - Credit 640부터, 20% down 가능
- Conventional Loan • VA/FHA Loan
- Refinance/ Rate & Term/ Cash-out

NMLS #343413 **213.591.2535**
seanhansu@gmail.com
18725 E. Gale Ave. Ste. 100, City of Industry, CA 91748